

## 58

##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 근긴장성 두통, 알레르기성 비염

성별	여성	나이	48세	직종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2011년부터 □회사에 입사하여 전장사업부 생산관리팀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입사 후 약 2년 후 2013년 □병원에서 특이적인 원이나 기저 질환, 유발 원인으로 의심될만한 요인의 노출력 등이 알려지지 않은 후각 신경의 장애, 무후각증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하였고, 2015년 □병원에서 후각이상 외 근긴장성 두통,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 받았다.

## 2 작업환경

○○○은 2011년 □회사에 입사하여 약 3년 8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정상 근무, 이후 잔업으로 10시간 근무하였다. 주로 다양한 자동차 부품의 조립 작업을 하였으며, 가스센서 조립작업을 많이 하였다. 가스센서 조립라인에는 평균 3명이 근무하였고 작업순서는 케이스에 멤브레인 초음파 용착 → PCB 분리작업 → 케이스에 PCB 삽입 → 자동납땜 → 캡하우징 → 지그에 놓고 에폭시 도포 순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자 ○○○은 납땜 작업은 하지 않았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질환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유기용제)
- 물리적 요인(중금속)

## 5 의학적 소견

○○○은 2011년 □회사에 입사하여 전장사업부 생산관리팀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하였다. 입사 2년 후부터 후각신경의 장애, 후각소실, 무후각증으로 진단되어 대증적인 치료를 받았다. 진단 당시에 무후각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염 등의 기저질환이나 호르몬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 열흘간 지속되는 두통, 뒤로 넘어가는 느낌, 구토, 설사를 주소로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자율신경 이상이 의심되는 것 외에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대증적 치료 지속하고 있다. 현재 후각 이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 근긴장성 두통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고 있지 않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2011년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에폭시레진 도포시 유기용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노출 기간이 1~2년 사이로 길지 않으며, 급성 무후각증을 발생시킬 수준의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고, 사업장 조사 결과 기존의 직업적 무후각증 사례에 비해 후각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의심되는 공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 문헌고찰, 진료기록 확인, 작업환경 조사, 근로자 면담을 통해 추정한 바로 기질적 원인을 제외한 후 진단한 임상적 추정 진단명으로 보이며, 직업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근긴장성 두통은 매우 비특이적인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역시 기질적인 원인을 감별하고 난 이후에 증상의 양상에 따라 내린 임상적 추정 진단으로 직업적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